

6/22/23, 6:20 PM

삼성디스플레이, 집념으로 이룬 최고 화질...풀HD 아몰레드 혁명 | 한국경제

2023.06.22 목요일

Family Site 구독신청

한경 기사액자 만들기

한경 뉴스

[BIZ Insight] 삼성디스플레이, 집념으로 이룬 최고 화질...풀HD 아몰레드 '혁명'

입력 2013.11.01 07:08 수정 2013.11.01 07:08 지면 B1

가까



1인치에 441개 점 찍는 고도의 기술력 과시

갤럭시S4에 첫 탑재...반년 만에 4000만대 판매

휘거나 접을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세계 1위 안착 '전력투구'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최강자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노트3 등 최신 제품을 자랑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풀HD(1920×1080 화소) 화질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들 했다. 풀HD 아몰레드 패널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양산이 가능할 정도의 수율(收率·완성품 비율)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던 경쟁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지난해 말 4.99인치 풀HD 아몰레드 패널을 개발했고, 지난 4월엔 갤럭시S4에 탑재하며 양산에도 성공했다. 인치당 픽셀수는 441ppi로 아이폰5의 326ppi보다 훨씬 높다. 회사 관계자는 "1인치에 441개의 점을 찍어놓은 것"이라며 "미세한 점을 정확하게 찍는 고도의 증착 기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확고한 최강자로 자리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 시장을 불잡으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선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간다는

오늘의 주요뉴스



"올 하반기 아파트값 오른다"...부동산 고수들이 짚한 ...



尹 "베트남과 끈끈한 한국에 새 기회 열리고 있다"



"내년 삼성 파운드리 잡겠다"... 'CPU 제국' 인텔의 선전..



단독 판사도 태블릿 보며 '땅땅땅'...세계 첫 '디지털법원' ...



SK온, 美서 92억달러 투자 자금 조달...포드 합작사 '탄력'

전략이다. 미래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풀HD 아몰레드의 우월한 기술력

아몰레드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디스플레이 뒤에서 빛을 내는 발광체인 백라이트가 필요없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얇고, 전력 소모가 작고, 전기신호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다. 명암비가 높아 더 선명하다.

그러나 발광 유기물을 증착해 화소를 구현하는 만큼 소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해상도를 풀HD급으로 높이기 쉽지가 않다. 한때 삼성디스플레이 내부에서도 아몰레드를 포기하고 LCD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그래도 '삼성 스마트폰=아몰레드'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고, 온갖 장벽을 결국은 뚫었다.

풀HD 아몰레드 패널을 처음 탑재한 갤럭시S4에 대한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4는 6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 판매량 4000만대를 돌파했다. 4000만대를 파는 데 7개월이 걸린 갤럭시S3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다.

지난 9월 출시한 갤럭시노트3도 디스플레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를 채택해 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휘도(밝기) 개선으로 야외 시인성도 대폭 높였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노트3는 노트2 대비 55%, S4 대비 25% 밝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소비전력 성능도 풀HD급에서 OLED가 LCD보다 30%가량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HD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아몰레드의 경쟁력은 점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풀HD 아몰레드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출하량에서 각각 70.3%와 65.5%의 점유율로 휴대폰용 풀HD 패널 시장을 석권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 잡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삼성 특유의 '해쳐 모여'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S-LCD가 합쳐져 자산규모 33조원, 직원수 2만6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 새로 출범했다.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내심 걱정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력 분야를 LCD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OLED 사업으로 빠르게 바꿔가야 했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를 맡은 김기남 사장이 총대를 댔다. 결국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대형 OLED 양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곡면 OLED TV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스마트폰용 풀HD 패널에선 아몰레드로 확고한 시장지배권을 자랑한다. 점유율

65~70%의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샤프와 재팬디스플레이 같은 일본 업체들이 10%대의 점유율로 2, 3위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 매출 8조4600억원에 영업이익 1조17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14%로 5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과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저가 전략에 대한 대응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8세대 LCD 생산공장인 삼성쑤저우 LCD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지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23일엔 삼성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던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43%를 미국 코닝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코닝 본사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여 장기적으로 7.4% 지분을 갖는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미국 코닝과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형인 과제도 있다. 대형 OLED(발광다이오드)와 UHD(초고화질)는 물론 플렉시블(휘어지는)과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곡선형 디스플레이를 본격 양산하며 휘거나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라운드'에 처음 탑재된 플라스틱 디스플레이도 새롭게 시작한 도전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좋아요
0



싫어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기업 경영

#BIZ Insight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지면 구독신청

관련 뉴스

1 [Column of the week] 규제당국의 어리석은 '페튜니아 숙청...

정부 당국의 규제는 단순히 사회를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멍청하기도 하다. 그런 전형적인 경우가 지난달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가 13종의 페튜니아를 없...



2 [Global View & Point] 새 정부의 '혁신 창업기업' 지원...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지목했다. 창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강조되는 모양...



3 column of the week 앤디 케슬러 작가前 헤지펀드 매니저....

잘나가는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중국 기업가들이나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공격, 혹은 마크 저커버그의 클론에 의해...



기사댓글

기사를 읽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게시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총 0개의 게시글

추천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① 운영정책

✍ 첫번째 게시글을 작성해주세요.

분야별 주요뉴스



직장인 점심 한 끼에 1만1000원

"킬러문항 없애겠다" 정부 발표에...
희비 엇갈린 교육계"올 S&P500 14.3% 상승...빅테크 제
외시 3% 상승 그쳐"3.3m²당 1억...한남 뉴타운
거단지' 탈바꿈한다

뉴스	전체뉴스 경제 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IT·과학 라이프 문화 골프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일반
한경코리아마켓	뉴스 시장지표 한경지수 마켓MAP 한경 증목+ 스크리너 코리아마켓TV 컨센서스 한경 스타워즈 한경 머니 The Moneyist 암호화폐 한경 유라
한경글로벌마켓	뉴스 월스트리트나우 로보뉴스 글로벌마켓TV 미국 증목 시세 마켓MAP 미국 증목 실적 경제캘린더 스크리너 도움말
집코노미	뉴스 집코노미TV 분양일정 매물마당 매물정보 칼럼 매물관리센터
프리미엄 콘텐츠	한경 마켓PRO 한경 CHO Insight 한경 Geeks VIDEO 뉴스레터 The Moneyist The Lifeist 기자 코너 보도자료 마켓인사이트 한경 BIO Insight 한경ESG 신문보기 WSJ보기 KED Global 한경멤버스
데이터센터	한경지수 해외지수 외환 원자재 국내경제지표 채권금리 미국 증목 실적 경제 캘린더 전종목 시세
한경 서비스	랭킹뉴스 이슈+ 인사부고 뉴스레빗 한경용어사전 이벤트행사 POLL 블루밍비트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구독신청 | 고충처리 | 광고안내 | 대표번호 :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 제휴 / 콘텐츠구입 | **암호화폐(KLAY) 문의** | 광고안내 | 이메일 문의 | 사이트맵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이지연) | 대표번호 :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사업자번호 : 104-81-47984 | 통신판매번호 : 중구006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35 | 등록(발행)일자 : 2009.11.23 | 발행·편집인 : 정종태

Copyright 1999-2023.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경제Family | 한국경제TV | 한국경제매거진 | Book | 한경arteTV | 텐아시아 | KED Global

한경 기사액자 만들기

한경 뉴스

[BIZ Insight] Samsung Display achieves the highest definition quality with tenacity. Full HD AMOLED "Revolution"

Upload 2013.11.01 07:08 Edited 2013.11.01 07:08 Section B1

가



1Boasts the advanced technology of putting 441 dots on 1 inch
Installed on GalaxyS4 for the first time, 40 million units sold in 6 months
Development of bendable or foldable next generation display, full-fledge endeavors exerted to secure the world's top position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최강자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노트3 등 최신 제품을 자랑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People have said that it would not be easy to realize the full HD (1920 × 1080 pixels) definition with 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AMOLED) display. It was also said that even with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full HD AMOLED panel, securing a sufficient yield rate (ratio of finished products) for mass production will be difficult.

Samsung Display neatly overturned the competitors' expectation of the "impossibility." The company developed the 4.99-inch Full HD AMOLED panel at the end of last year and in April, it was successful in mass production by applying it to Galaxy S4. The number of pixels per inch is 441 ppi, much higher than the iPhone 5's 326 ppi. A company official said that "It is putting 441 dots on one inch," and mentioned that "it required a highly sophisticated evaporation technology to accurately place the fine dots."

Samsung Display is actively moving to establish itself as the steadfast leader in the global display market. With the leading technology, the company's strategy is to secure the China market that has the highest demand and secure the premium market hegemony in the U.S. and Europe. It continues to make bold investments i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future display technologies.

오늘의 주요뉴스



"올 하반기 아파트값 오른다"...부동산 고수들이 짚한 ...



尹 "베트남과 끈끈한 한국에 새 기회 열리고 있다"



"내년 삼성 파운드리 잡겠 다"... 'CPU 제국' 인텔의 선전.



단독 판사도 태블릿 보며 '땅땅땅'...세계 첫 '디지털법원' ...



SK온,美서 92억달러 투자 자금 조달...포드 합작사 '탄력'

0 Full HD AMOLED, a superior technology

Unlike liquid crystal display (LCD), AMOLED does not require a backlight which is a luminant that emits light at the back of the display. This is because it uses a light-emitting organic material that is self-luminous. Thus, it is thinner with lower power consumption and reacts faster to electrical signals. The images are sharper due to higher contrast ratio.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resolution of the small-sized displays to be at the level of full HDs as the pixels are realized by evaporating the light-emitting organic materials. This is why even some internal voices at Samsung Display opined that AMOLED should be abandoned and pursue LCD instead. Nevertheless, the company persevered to uphold the principle of "Samsung smartphone is AMOLED itself", and it finally overcame all the barriers.

The market response is favorable to the Galaxy S4, which was the first to be equipped with a Full HD AMOLED panel. According to Samsung Electronics, the sales of Galaxy S4 released in April exceeded 40 million units in the global market within the six months-time. This is one month faster than Galaxy S3 that took seven months to break the 40 million mark.

The Galaxy Note 3 released last September is also highly recognized for its display. It boasts a sharper image quality by adopting the Diamond Pixel structure. Outdoor visibility is significantly improved by enhancing the luminance (brightness). Shim Jae-bu, vice president at Samsung Display said, "Brightness for the Note 3 was enhanced by 55% compared to the Note 2, and by 25% compared to the S4." As for power consumption performance, OLED is around 30% better than that of full HD level LCD.

The conspicuous AMOLED in the full HD marke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that is evident in its market share.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company DisplaySearch, the Full HD AMOLED dominated the full HD panel market for mobile phones as of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with the share of 70.3% in sales and 65.5% in shipments.

0 Taking the lead for next generation display

Samsung Display was established in July last year through Samsung's unique process of "disperse and congregate."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the Display Division of Samsung Electronics, Samsung Mobile Display (SMD), and S-LCD were merged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display company with 33 trillion won in assets and 26,000 employees.

Despite its brilliant launch, there were also looming concerns. Most of all, the focus of the business had to be swiftly changed to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OLED from the LCD. President Kim Ki-nam who became the CEO in December last year carried the ball. As a result, it succeeded in the mass production of large OLEDs that had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in yield rates and launched the curved OLED TVs successfully.

The AMOLED boasts an unbeatable dominance in the smart phone full HD panel market. Samsung Display takes up the market share of 65-70 percent followed by Japanese firms such as Sharp and Japan Display in the second and third ranks with their market shares in the 10 percent range.

Samsung Display recorded a sales volume of 8.46 trillion won and an operating profit of 1.17 trillion won on in the third quarter of last year. The operating margin ratio recorded 14 percent, making it to be in the double digits for five consecutive quarters.

It is also responding in earnest to the low-price strategies of Chinese and Taiwanese display companies. On the 25th of last month, Samsung Display held a completion ceremony for Samsung Suzhou LCD, an 8th-generation LCD production plant in China to set out on a full-scale entry into the local market.

On the 23rd of last month, Samsung Display announced that it would sell its 43 percent stake in Samsung Corning Precision Materials to Corning, the U.S. company. Instead, it will buy th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of the Corning headquarters to become the major shareholder with a 7.4% stake in the long term. Samsung Display explained that "This is to maintain a substantial mid to long-term cooperation with U.S. Corning." Expectations have it that the role of Samsung Display will expand.

There are also projects currently in progress. Samsung Display needs to secure a firm lead in the next generation displays such as flexible (bendable) displays in addition to large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and UHD (Ultra-High Definition). Starting with the full-fledged mass-production of curved displays in September, Samsung Display is preparing for the evolution of display to which it can bend or fold. The plastic display first applied to Samsung Electronics' 'Galaxy Round' is also a new challenge it took on.

Reported by Yoon Jeong-hyun hit@hankyung.com



좋아요
0



싫어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기업 경영

#8IZ Insight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지면 구독신청

관련 뉴스

1 [Column of the week] 규제당국의 어리석은 '페튜니아 숙청...

정부 당국의 규제는 단순히 사회를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멍청하기도 하다. 그런 전형적인 경우가 지난달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가 13종의 페튜니아를 없...



2 [Global View & Point] 새 정부의 '혁신 창업기업' 지원...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지목했다. 창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강조되는 모양...



3 column of the week 앤디 케슬러 작가前 헤지펀드 매니저....

잘나가는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중국 기업가 아니냐.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공격, 혹은 마크 저커버그의 클론에 의해...



기사댓글

기사를 읽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게시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총 0개의 게시글

추천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① 운영정책

✎ 첫번째 게시글을 작성해주세요.

분야별 주요뉴스



직장인 점심 한 끼에 1만1000원

"킬러문항 없애겠다" 정부 발표에...
희비 엇갈린 교육株"올 S&P500 14.3% 상승...빅테크 제
외시 3% 상승 그쳐"3.3m²당 1억...한남 뉴타운
거단지' 탈바꿈한다

뉴스	전체뉴스 경제 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IT·과학 라이프 문화 골프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일반
한경코리아마켓	뉴스 시장지표 한경지수 마켓MAP 한경 종목+ 스크리너 코리아마켓TV 컨센서스 한경 스타워즈 한경 머니 The Moneyist 암호화폐 한경 유러
한경글로벌마켓	뉴스 월스트리트나우 로보뉴스 글로벌마켓TV 미국 종목 시세 마켓MAP 미국 종목 실적 경제캘린더 스크리너 도움말
집코노미	뉴스 집코노미TV 분양일정 매물마당 매물정보 칼럼 매물관리센터
프리미엄 콘텐츠	한경 마켓PRO 한경 CHO Insight 한경 Geeks VIDEO 뉴스레터 The Moneyist The Lifeist 기자 코너 보도자료 마켓인사이트 한경 BIO Insight 한경ESG 신문보기 WSJ보기 KED Global 한경멤버스
데이터센터	한경지수 해외지수 외환 원자재 국내경제지표 채권금리 미국 종목 실적 경제 캘린더 전종목 시세
한경 서비스	랭킹뉴스 이슈+ 인사부고 뉴스레빗 한경용어사전 이벤트행사 POLL 블루밍비트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구독신청 | 고충처리 | 광고안내 | 대표번호 :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 제휴 / 콘텐츠구입 | 암호화폐(KLAY) 문의 | 광고안내 | 이메일 문의 | 사이트맵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이지연) | 대표번호 :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사업자번호 : 104-81-47984 | 통신판매번호 : 중구006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35 | 등록(발행)일자 : 2009.11.23 | 발행·편집인 : 정종태

Copyright 1999-2023.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경제Family | 한국경제TV | 한국경제매거진 | Book | 한경arteTV | 텐아시아 | KED Global



Registered No. 2024-0964

CERTIFICATE



GNS TRANSLATION & ADMINISTRATION OFFICE

#1405 Daeil Bldg, 12,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한경 기사액자 만들기

한경 뉴스

[BIZ Insight] Samsung Display achieves the highest definition quality with tenacity. Full HD AMOLED "Revolution"

Upload 2013.11.01 07:08 Edited 2013.11.01 07:08 Section B1

가



1Boasts the advanced technology of putting 441 dots on 1 inch
Installed on GalaxyS4 for the first time, 40 million units sold in 6 months
Development of bendable or foldable next generation display, full-fledge
endeavors exerted to secure the world's top position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최강자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노트8 등 최신 제품을 자랑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오늘의 주요뉴스



"올 하반기 아파트값 오른다"...부동산 고수들이 짚한 ...



尹 '베트남과 끈끈한 한국에 새 기회 열리고 있다'



"내년 삼성 파운드리 잡겠다"... 'CPU 제국' 인텔의 선전.



만들 판사도 태블릿 보며 '땅땅땅'...세계 첫 '디지털법원' ...



SK온, 美서 92억달러 투자 자금 조달...포드 합작사 '탄력'

People have said that it would not be easy to realize the full HD (1920 × 1080 pixels) definition with 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AMOLED) display. It was also said that even with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full HD AMOLED panel, securing a sufficient yield rate (ratio of finished products) for mass production will be difficult.

Samsung Display neatly overturned the competitors' expectation of the "impossibility." The company developed the 4.99-inch Full HD AMOLED panel at the end of last year and in April, it was successful in mass production by applying it to Galaxy S4. The number of pixels per inch is 441 ppi, much higher than the iPhone 5's 326 ppi. A company official said that "It is putting 441 dots on one inch," and mentioned that "it required a highly sophisticated evaporation technology to accurately place the fine dots."

Samsung Display is actively moving to establish itself as the steadfast leader in the global display market. With the leading technology, the company's strategy is to secure the China market that has the highest demand and secure the premium market hegemony in the U.S. and Europe. It continues to make bold investments i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future display technologies.

0 Full HD AMOLED, a superior technology

Unlike liquid crystal display (LCD), AMOLED does not require a backlight which is a luminant that emits light at the back of the display. This is because it uses a light-emitting organic material that is self-luminous. Thus, it is thinner with lower power consumption and reacts faster to electrical signals. The images are sharper due to higher contrast ratio.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resolution of the small-sized displays to be at the level of full HDs as the pixels are realized by evaporating the light-emitting organic materials. This is why even some internal voices at Samsung Display opined that AMOLED should be abandoned and pursue LCD instead. Nevertheless, the company persevered to uphold the principle of "Samsung smartphone is AMOLED itself", and it finally overcame all the barriers.

The market response is favorable to the Galaxy S4, which was the first to be equipped with a Full HD AMOLED panel. According to Samsung Electronics, the sales of Galaxy S4 released in April exceeded 40 million units in the global market within the six months-time. This is one month faster than Galaxy S3 that took seven months to break the 40 million mark.

The Galaxy Note 3 released last September is also highly recognized for its display. It boasts a sharper image quality by adopting the Diamond Pixel structure. Outdoor visibility is significantly improved by enhancing the luminance (brightness). Shim Jae-bu, vice president at Samsung Display said, "Brightness for the Note 3 was enhanced by 55% compared to the Note 2, and by 25% compared to the S4." As for power consumption performance, OLED is around 30% better than that of full HD level LCD.

The conspicuous AMOLED in the full HD marke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that is evident in its market share.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company DisplaySearch, the Full HD AMOLED dominated the full HD panel market for mobile phones as of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with the share of 70.3% in sales and 65.5% in shipments.

0 Taking the lead for next generation display

Samsung Display was established in July last year through Samsung's unique process of "disperse and congregate."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the Display Division of Samsung Electronics, Samsung Mobile Display (SMD), and S-LCD were merged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display company with 33 trillion won in assets and 26,000 employees.

Despite its brilliant launch, there were also looming concerns. Most of all, the focus of the business had to be swiftly changed to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OLED from the LCD. President Kim Ki-nam who became the CEO in December last year carried the ball. As a result, it succeeded in the mass production of large OLEDs that had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in yield rates and launched the curved OLED TVs successfully.

The AMOLED boasts an unbeatable dominance in the smart phone full HD panel market. Samsung Display takes up the market share of 65-70 percent followed by Japanese firms such as Sharp and Japan Display in the second and third ranks with their market shares in the 10 percent range.

Samsung Display recorded a sales volume of 8.46 trillion won and an operating profit of 1.17 trillion won on in the third quarter of last year. The operating margin ratio recorded 14 percent, making it to be in the double digits for five consecutive quarters.

It is also responding in earnest to the low-price strategies of Chinese and Taiwanese display companies. On the 25th of last month, Samsung Display held a completion ceremony for Samsung Suzhou LCD, an 8th-generation LCD production plant in China to set out on a full-scale entry into the local market.

On the 23rd of last month, Samsung Display announced that it would sell its 43 percent stake in Samsung Corning Precision Materials to Corning, the U.S. company. Instead, it will buy th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of the Corning headquarters to become the major shareholder with a 7.4% stake in the long term. Samsung Display explained that "This is to maintain a substantial mid to long-term cooperation with U.S. Corning." Expectations have it that the role of Samsung Display will expand.

There are also projects currently in progress. Samsung Display needs to secure a firm lead in the next generation displays such as flexible (bendable) displays in addition to large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and UHD (Ultra-High Definition). Starting with the full-fledged mass-production of curved displays in September, Samsung Display is preparing for the evolution of display to which it can bend or fold. The plastic display first applied to Samsung Electronics' 'Galaxy Round' is also a new challenge it took on.

Reported by Yoon Jeong-hyun hit@hankyung.com



좋아요
0



싫어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기업 경영

#BIZ Insight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관련 뉴스

1 [Column of the week] 규제당국의 어리석은 '페튜니아 숙청...

정부 당국의 규제는 단순히 사회를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명징하기도 하다. 그런 전형적인 경우가 지난달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가 13종의 페튜니아를 없...



2 [Global View & Point] 새 정부의 '혁신 창업기업' 지원..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지목했다. 창업을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강조되는 모양...



3 column of the week 엔디 케슬러 작가 前 헤지펀드 매니저....

잘나가는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중국 기업가 아니냐. 워너비와 높은 랜섬웨어의 공격 혹은 마크 저커버그의 클론에 의해서...



기사댓글

기사를 읽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게시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총 0개의 게시글

추천순 | 등록순 | 최신순 | 알파순

① 운영정책

첫번째 게시글을 작성해주세요.

분야별 주요뉴스



직장인 점심 한 끼에 1만1000원

"킬러문항 없애겠다" 정부 발표에...
희비 엇갈린 교육株"올 S&P500 14.3% 상승...빅테크 제
외시 3% 상승 그쳐"3.3m²당 1억...한남 뉴타운
거단지' 탈바꿈한다

뉴스	전체뉴스 경제 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IT과학 라이프 문화 골프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일반
한경코리아마켓	뉴스 시장지표 한경지수 마켓MAP 한경 종목+ 스크리너 코리아마켓TV 컨센서스 한경 스타워즈 한경 머니 The Moneyist 암호화폐 한경 유로
한경글로벌마켓	뉴스 월스트리트나우 로보뉴스 글로벌마켓TV 미국 증목 시세 마켓MAP 미국 증목 실적 경제캘린더 스크리너 도움말
집코노미	뉴스 집코노미TV 분양일정 매물마당 매물정보 칼럼 매물관리센터
프리미엄 콘텐츠	한경 마켓PRO 한경 CHO Insight 한경 Geeks VIDEO 뉴스레터 The Moneyist The Lifeist 기자 코너 보도자료 마켓인사이트 한경 BIO Insight 한경ESG 신문보기 WSJ보기 KED Global 한경멤버스
데이터센터	한경지수 해외지수 외환 원자재 국내경제지표 채권금리 미국 증목 실적 경제 캘린더 전종목 시세
한경 서비스	랭킹뉴스 이슈+ 인사부고 뉴스레빗 한경용어사전 이벤트행사 POLL 블루밍비트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구독신청 | 고충처리 | 광고안내 | 대표번호: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 제휴 / 콘텐츠구입 | 암호화폐(KLAY) 문의 | 광고안내 | 이메일 문의 | 사이트맵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지연) | 대표번호: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정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사업자번호: 104-81-47984 | 통신판매번호: 중구006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1035 | 등록(발행)일자: 2009.11.23 | 발행·편집인: 정종태

Copyright 1999-2023.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경제Family | 한국경제TV | 한국경제매거진 | Book | 한경arteTV | 텐아시아 | KED Global

≡ 한경 기사액자 만들기

한경 뉴스

[BIZ Insight] 삼성디스플레이, 집념으로 이룬 최고 화질...풀HD 아몰레드 '혁명'

입력 2013.11.01 07:08 수정 2013.11.01 07:08 지면 B1

가까



1인치에 441개 점 찍는 고도의 기술력 과시
갤럭시S4에 첫 탑재...반년 만에 4000만대 판매
휘거나 접을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세계 1위 안착 '전력투구'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최강자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노트3 등 최신 제품을 자랑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풀HD(1920×1080 화소) 화질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들 했다. 풀HD 아몰레드 패널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양산이 가능할 정도의 수율(收率·완성품 비율)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던 경쟁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지난해 말 4.99인치 풀HD 아몰레드 패널을 개발했고, 지난 4월엔 갤럭시S4에 탑재하며 양산에도 성공했다. 인치당 픽셀수는 441ppi로 아이폰5의 326ppi보다 훨씬 높다. 회사 관계자는 "1인치에 441개의 점을 찍어놓은 것"이라며 "미세한 점을 정확하게 찍는 고도의 증착 기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확고한 최강자로 자리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 시장을 붙잡으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선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간다는

오늘의 주요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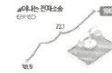
"올 하반기 아파트값 오른다"...부동산 고수들이 짚한 ...



尹 "베트남과 끈끈한 한국에 새 기회 열리고 있다"



"내년 삼성 파운드리 잡겠다"...CPU 제국 인텔의 선전.



단독 판사도 태블릿 보며 '땅땅땅'...세계 첫 '디지털법원' ...



SK온,美서 92억달러 투자 자금 조달...포드 합작사 '탄력'



전략이다. 미래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풀HD 아몰레드의 우월한 기술력

아몰레드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디스플레이 뒤에서 빛을 내는 발광체인 백라이트가 필요없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얇고, 전력 소모가 작고, 전기신호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다. 명암비가 높아 더 선명하다.

그러나 발광 유기물을 증착해 화소를 구현하는 만큼 소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해상도를 풀HD급으로 높이기 쉽지가 않다. 한때 삼성디스플레이 내부에서도 아몰레드를 포기하고 LCD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그래도 '삼성 스마트폰=아몰레드'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고, 온갖 장벽을 결국은 뚫었다.

풀HD 아몰레드 패널을 처음 탑재한 갤럭시S4에 대한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4는 6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 판매량 4000만대를 돌파했다. 4000만대를 파는 데 7개월이 걸린 갤럭시S3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다.

지난 9월 출시한 갤럭시노트3도 디스플레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를 채택해 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휘도(밝기) 개선으로 야외 시인성도 대폭 높였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노트3는 노트2 대비 55%, S4 대비 25% 밝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소비전력 성능도 풀HD급에서 OLED가 LCD보다 30%가량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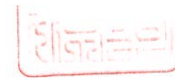
풀HD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아몰레드의 경쟁력은 점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풀HD 아몰레드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출하량에서 각각 70.3%와 65.5%의 점유율로 휴대폰용 풀HD 패널 시장을 석권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 잡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삼성 특유의 '헤쳐 모여'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S-LCD가 합쳐져 자산규모 33조원, 직원수 2만6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 새로 출범했다.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내심 걱정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력 분야를 LCD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OLED 사업으로 빠르게 바꿔가야 했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를 맡은 김기남 사장이 총대를 댔다. 결국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대형 OLED 양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곡면 OLED TV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스마트폰용 풀HD 패널에선 아몰레드로 확고한 시장  을 자랑한다. 점유율



65~70%의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샤프와 재팬디스플레이 같은 일본 업체들이 10%대의 점유율로 2, 3위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 매출 8조4600억원에 영업이익 1조17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14%로 5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과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저가 전략에 대한 대응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8세대 LCD 생산공장인 삼성쑤저우 LCD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지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23일엔 삼성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던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43%를 미국 코닝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코닝 본사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여 장기적으로 7.4% 지분을 갖는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미국 코닝과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형인 과제도 있다. 대형 OLED(발광다이오드)와 UHD(초고화질)는 물론 플렉시블(휘어지는)과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곡선형 디스플레이를 본격 양산하며 휘거나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라운드'에 처음 탑재된 플라스틱 디스플레이도 새롭게 시작한 도전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좋아요
0



싫어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기업 경영 #BIZ Insight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관련 뉴스

1 [Column of the week] 규제당국의 어리석은 '페튜니아 숙청...

정부 당국의 규제는 단순히 사회를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멍청하기도 하다. 그런 전형적인 경우가 지난달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가 13종의 페튜니아를 없...



2 [Global View & Point] 새 정부의 '혁신 창업기업' 지원...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 을 지목했다. 창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강조되는 모양...



3 column of the week 앤디 케슬러 작가前 헤지펀드 매니저....

잘나가는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중국 기업가...이나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공격, 혹은 마크 저커버그의 글론에 의해서...



기사댓글

기사를 읽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게시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총 0개의 게시글

추천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운영정책

첫번째 게시글을 작성해주세요.

분야별 주요뉴스



직장인 점심 한 끼에 1만1000원

"킬러문항 없애겠다" 정부 발표에...
희비 엇갈린 교육株"올 S&P500 14.3% 상승...빅테크 제
외시 3% 상승 그쳐"3.3m²당 1억...한남 뉴타운
거단지' 탈바꿈한다

뉴스	전체뉴스 경제 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IT과학 라이프 문화 골프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일반
한경코리야마켓	뉴스 시장지표 한경지수 마켓MAP 한경종목+ 스크리너 코리아마켓TV 컨센서스 한경스타워즈 한경머니 The Moneyist 암호화폐 한경유리
한경글로벌마켓	뉴스 월스트리트나우 로보뉴스 글로벌마켓TV 미국종목시세 마켓MAP 미국종목실적 경제캘린더 스크리너 도움말
집코노미	뉴스 집코노미TV 분양일정 매물마당 매물정보 칼럼 매물관리센터
프리미엄 콘텐츠	한경마켓PRO 한경CHO Insight 한경Geeks VIDEO 뉴스레터 The Moneyist The Lifeist 기자코너 보도자료 마켓인사이트 한경BIO Insight 한경ESG 신문보기 WSJ보기 KED Global 한경멤버스
데이터센터	한경지수 해외지수 외환 원자재 국내경제지표 채권금리 미국종목실적 경제캘린더 전종목시세
한경 서비스	랭킹뉴스 이슈+ 인사부고 뉴스레빗 한경용어사전 이벤트행사 POLL 블루밍비트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구독신청 | 고충처리 | 광고안내 | 대표번호: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 제휴/콘텐츠구입 | 암호화폐(KLAY) 문의 | 광고안내 | 이메일 문의 | 사이트맵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지연) | 대표번호: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사업자번호: 104-81-47984 | 통신판매번호: 중구006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1035 | 등록(발행)일자: 2009.11.23 | 발행·편집인: 정종태

Copyright 1999-2023.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경제Family | 한국경제TV | 한국경제매거진 | Book | 한경arteTV | 텐아시아 | KED Global

등부 2024년 제 0964호

Registered No. 2024-0964

외 국 어 번 역 행 정 사 확 인 서

CERTIFICATE OF LICENSED
TRANSLATION

나는 첨부된 문서가 본 사무소에 의하여 번역
이 되었으며 그 번역이 진실되고 원본과 일치
한 것임을 증명한다.

I hereby certify that GNS CO.,LTD., translated
the attached document.

The translation is true, correct and accurate
to the original.

위 번역문은 원본과 일치하게 번역하였기에 대
한민국 행정사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하여 번역
확인증명서에 서명 날인 하였다.

Since the above translation was translated to
match the original, the Certificate of
Translation was signed and sea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0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in the
Republic of the Korea.

2024 년 03 월 06 일
위 사무소에서 인증한다.

This is hereby confirmed on this 6th day of
March 2024 at thi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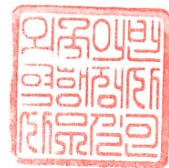
대한행정사협회
등록번호 : 제 267호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Registration Number : 267

羅 完 植



wan sik Ra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증 번호:15300000110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icense No.15300000110

지앤에스 번역행정사 사무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1405호(인사동, 대일빌딩)

GNS TRANSLATION & ADMINISTRATION OFFICE
#1405 Daeil Bldg, 12,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